

## 대학도서관에서의 신입생들에 대한 독서지도

〈한국교원대〉 이 종 선

현대사회에서의 독서는 인간이 생활해가는 데 신속한 정보의 제공과 높은 교양 및 올바른 비판력을 길러주는 교육적 견지에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성장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학 신입생들을 관련해서 생각할 때 독서를 통하여 얻는 여러가지 직접간접의 경험을 체험하여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함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독서지도는 단지 책을 읽히어 독해력을 증진시킨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한 인격형성이라는 목적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어교육이나 아동문학지도에서 독자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들이 생활하는 사회 어디서나 그들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하나로 통합된 지도체계를 가지고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서지도는 평생교육적 문제이며, 독서흥미의 발달 단계중 사색기에 놓여있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독서지도를 통하여 자기 생활을 풍부하고 착실하게 이끌어 나가서 사회에서 원만하게 적응하는 인격체가 형성되도록, 계획적으로 도와주는 교육적인 기능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독서교육의 역사적 측면을 살펴보면 조선초기에는 교육=독서=생활지도라 볼 수 있었다. 「우리의 읽기 교육은 “한글”이 반포된 이후 비로소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이 차츰 책을 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독서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지만, 매스컴의 출현, 교육정책, 국민의 가치관 등의 원인에 따라 독서의 부재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독서지도란 광의적인 개념으로는 독서에 의한 인간형성이라는 의미로

독서교육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며,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독서교육의 방법론과 그 실천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형성을 위한 독서는 태도,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개발의 지도를 의미하는데 교육적인 관점에서 사회변천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교육의 목표는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와 공부를 통하여 기존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생산하여 인간을 무지로 부터 해방시키며, 뿐만 아니라 인격완성 및 자주적 생활능력을 기르고 나아가서는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격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래의 대학교육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비판력, 그리고 창의력을 길러 줄 터전을 마련해주지 못하였지만 대학교육 구조가 시대적인 방향전환 현상을 자아냄에 따라 대학도서관도 그러한 현상에 적응하여 그 이념구현과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단순히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학생, 교직원, 연구자들에게 학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더구나 대학에 처음 입학하여 새로운 세계에 접하게 된 신입생들에게 효율적인 독서지도를 함으로서 문제의 해결 및 여가선용, 교양을 함양시켜 폭넓은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대학생들에 대한 독서지도는 읽을거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찾고, 읽은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재창조하는 논문작성적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이런 목적하에 독서지도의 영역을 생각하면 도서관 및 도서관 자료활용법과 전통적인 읽기지도, 독서기능 지도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독서지도는 목적과 계획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고 동일한 내용도 피지배자의 환경 및 개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대학 신입생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도서선택지도

도서자료가 다종다양하여 적절한 도서를 능률적으로 택하는 일이 어

렵게 되어 독서자료를 직접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 2. 독서기술의 지도

독서기술의 지도는 단지 읽기 지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지도의 전영역을 기초로하여 독서자의 목적에 따라 독서의 방법을 이해하고 능률적 효과적인 독서기술을 발달시켜 바른 독서의 습관, 태도를 양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도내용으로는 서목작성, 노트하기, 정독 등이 포함된다.

## 3. 독서자료 종별에 따른 독서지도

독서자료에 따라 적절한 독서기술과 태도 등을 지도해야 한다.

## 4. 독서후 활동에 대한 지도

독서후 활동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예를들어 설명하면 독서회 및 독서발표회, 독서일기, 서평, 문집만들기 등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생활을 발달과정에서 볼 때, 국민학교 시절에는, 다소 자유스러운 독서활동으로 어느정도 독서흥미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상급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독서활동이 학교 공부로 인하여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70년대에 들어와 독서교육으로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독서교육은 첫째, 문학류 일변도의 책읽기와 그 독후감 작성에 급급하였으며 둘째, 독서에 관한 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셋째, 각 교과학습과 연계시킨 학습방법으로서의 독서와 또 도서관을 이용한 학습자료의 검색 및 활용법, 책이나 독서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물론 독서력의 효율적인 개발 등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지도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도서관에서 독서지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기와 담당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우선 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 신입생들에게 독서지도의 시기는 입학해서 바

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높았으며, 원하는 지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독서 선정 게시

둘째, 필독서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

셋째, 양서 추천하여 (소)책자 발간·배포

넷째, 도서관 이용법 강좌

다섯째, 도서관이나 기숙사에 독서지도에 관한 내용을 붙 수 있게 비치

여섯째, 학생의 독서수준 파악후 1:1로 개별지도

일곱째, 커리큘럼 설정 또는 특강

여덟째, 도서관에서 각학과를 순회하며 지도

아홉째, 감상문 발표회 등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각 도서관의 실정에 맞는 것을 택하여 실시하는데 담당자는 참고사서가 적합하리라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참고사서는 이용자와 직접 만나는 직접봉사자이며, 또한 신입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참고도서 이용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학에 있어서 독서지도의 필요성과 독서지도의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독서지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에서의 신입생들에 대한 독서지도 방법을 살펴보았다.

대학의 교육이 전통적인 교수방법인 교재중심주의, 교수중심주의를 지양하고 과제중심주의, 학생중심주의로 변화됨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학생·교수·교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더구나 대학에 처음 입학하여 새로운 세계에 접하게 된 신입생들에게는 효율적인 독서지도를 함으로써, 문제의 해결 및 여가선용, 교양을 함양시켜 폭넓은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서지도는 중·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입시준비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독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교과와 관련을 맺지 못하고 대부분 독후감을 쓰기위한

문학류 읽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에서는 학과공부와 연계시킨 학습방법으로서의 독서와 또 도서관을 이용한 학습자료의 검색 및 활용법, 책이나 독서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물론 독서력의 효율적인 개발 등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도서관의 역할이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서는 교육자 입장에서 봉사해야함을 재인식하고, 사서는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도 책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독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서는 독서인이 되어야 하겠다.

사서가 독서인이 될 때만 올바른 독서지도의 실현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독서지도를 할 때 비로소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